

에너지經營人 新年교례회

상공자원부장관등 250명참석 盛況이뤄

한국에너지 협의회는 작년말 UR의 소용돌이를 겪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다져지고있는 1944년 갑술(甲戌)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3일(木) 저녁5시반부터 서울 한국전력 본사 후생동에서 "1994년 에너지經營人 新年교례

회"를 가졌다.

오후 5시 이전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에너지經營人들을 맞이 위해李宗勳회장(한전사장)과 趙圭郷(油公사장), 徐生鉉(石公사장), 張基玉(KOPEC사장), 金永文부회장(한전부

사장)등 회장단은 교례회장 문앞에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영접했다.

주빈으로 초청된 金喆壽상공자원부장관이 공식시작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고 약 250명 에너지經營人들이 넓은 교례회장을 가득 메우자 교례회는 오후 5시 20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李宗勳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은 올해에 에너지經營人들이 처음 새해교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올해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것은 명실상부한 국제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에 에너지界經營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에너지효율 증진을 다지는 뜻이며 서로 새해의 덕담을 나눔으로써 올해 1년동안 에너지界가 더욱 힘찬 정진을 이룩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교례회 인



〈金喆壽상공자원부장관(右서 두번째)과 李宗勳회장(左)가 에너지經營人들과 새해 交禮를 하고 있다〉

WEC의 지역위원회 행사의 하나로 추진된 「WEC亞太에너지개발자금문제 포럼」이 지난해 11월26日~28日까지 홍콩 중심가에 있는 홍콩회의 및 전시센터 대강당에서 24개국의 각국 위원회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WEC香港위원회 「세이어스」(Sayers)위원장(홍콩 차이나 電力사장)의 개회사와 WEC「린세이」(Lindsay)사무총장의 기념사등에 이어 개막된 포럼은 4개주제를 놓고 이틀동안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열띤 토의

WEC亞太에너지資金포럼 개도국에너지開發자금문제집중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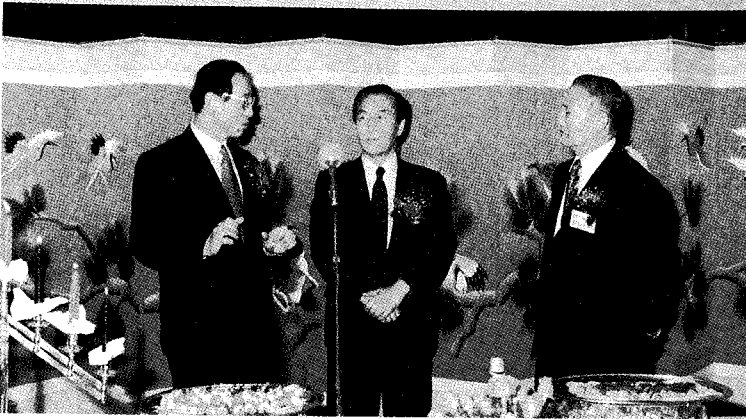
속에 진행됐다.

「포럼」의 전체 진행은 세계은행 財政부문 및 私企業부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처칠」(Churchill) 주임고문이 관장했으며 각주제에 대한 좌장(座長)은 WEC뉴질랜드주 브리안트(Bryant)위원장(제1주제), 영국 New Castle 대

휠스(Faels) 교수(제2주제), WEC 濠洲委 부스(Booth) 부위원장(제3주제), 홍콩 Wardly금융 화일스(Files) 부사장등이 맡아 진행했다.

첫날은 개회식에 이어 제1주제 「공익기업 규제와 선진국이 터득한 교훈」이라는 문제를 놓고 주제발표와

한국에너지협회의



〈左부터李회장, 금상공자원부장관, 徐生鉉석공사장등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를 했다.

이어서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증진의 길밖에 없는데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그리고 시장 개척같은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의 뒷받침과 에너지効率向上的 활동 없이 통상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주역인 에너지계기업인, 연구자 그리고 관련기관의 주요인사를 새해에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어 의의가 더욱 크다”고 인사하였다.

「스탠딩 부페」식으로 리셉션에 들어간 교례회는 금상공자원부장관과 李에너지협의회회장이 저마다 모여 새해의 이야기 꽃을 피우는 넓은 회의장안을 신년인사와 악수를 교환하

며 순회하자 절정에 달했는데 참석자들은 매년 이러한 신년교례회가 베풀어지기를 한결같이 희망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정부에서 장관을 비롯해 20명, 에너지協 李회장을 비롯한 徐錫天한전기공사장, 朴淸夫가스공사장, 趙鍾益광진사장, 成樂正경인에너지회장, 朴鍾律유공가스사장, 李壽崗한중사장, 柳鍾烈효성중사장, 趙末守포철사장, 李昌燮원전연료사장, 李會晟에經研소장, 吳正茂에技研소장, 張錫靖유개공사장, 金在祐三星重부사장, 石鎭哲大宇重사장, 沈鉉榮現代정유사장 및 鄭夢嫻부사장, 金東現현대건설 전무등 에너지협의회 회원사의 최고경영자와 비회원사이지만 앞으로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주요에너지관련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해 우의를 나누었으며 에너지계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WEC亞太에너지資金 포럼에 참석한 한국참가자들. 右부터 林弘國(KOPEC) 南廷一(한전), 崔世熙(에너지協), 林繁(한전), 金在善(지역난방)씨

「홍콩」서 3일간, 우리나라 6명 참석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하는 토의가 벌어졌고 제2주제 「공익기업의 경쟁의限界」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벌였다.

이틀째는 아침일찍부터 WEC가 4년의 작업끝에 발행한 Energy for Tomorrow's World에 대한 내용 요약보고와 토론이 벌어졌고 이어서 제3주제 「바람직한 에너지供給사업의 기업형태」, 제4주제 「開途國의 에너지개발 자금



조달」문제등이 깊어 있게 다루어졌다.

오후 늦게 열린 결론을 노출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포럼의장과 각주제 座長들이 단상에 자리잡고 참석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사업의 운영과 개발에 관한 여건은 환경문제와 맞물려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는 관념적

결론과 개도국개발을 둘러싼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기위해 WEC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이 포럼에 한전 南廷一, 林繁, KOPEC 林弘國, 지역난방 金在善, 崔淳赫, 에너지協 崔世熙씨등이 참석했다.

<제22차 에너지협 이사회가 한전 7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2차 이사회 定款개정, 고문추대안건등 의결

에너지협의회 제22차 이사회가 작년 11월 29일 오후3시 한국전력본사 7층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 18명중 15명의

이사와 감사2명등 17명의 임원이 참석해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 회원사인 기업체장들이 대폭적으로 바뀐 관계로 자동적으로 에너지협의회 이사진들도 많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서로 修人事를 한다음 개최되었다.

이번 22차 이사회는 먼저 에너지와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에너지협 제13차 기술자문위원회는 WEC 東京총회의 내실있는 참가문제를 논의

제13차 에너지협기술자문위원회 WEC東京총회 논문제출등 논의

에너지협의회 제13차 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WEC

동경총회(1995년 10월)에 제출할 논문작성, 전시회 및 청소년프로그램 참가, IAP Meeting참석건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문제출건에 대해서는 각 Division별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논문제출가능기관을 선별하였다.

WEC가 설정한 각부문별 주제는 ① 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② Future Sustainable Energy Supply ③ More Efficient of Use of Energy ④ Energy for Better Environment 등인데 이날 諮問委에서는 論文제출관련기관을 韓電, 兪經院, KIST, 原子力研, 兪管團, 地域난방, KOPEC, 精油3社, 浦鐵, 主要엔지니어링社, 환경개발研등으로 압축하고 이들 관련기관이 WEC 東京총회에